

#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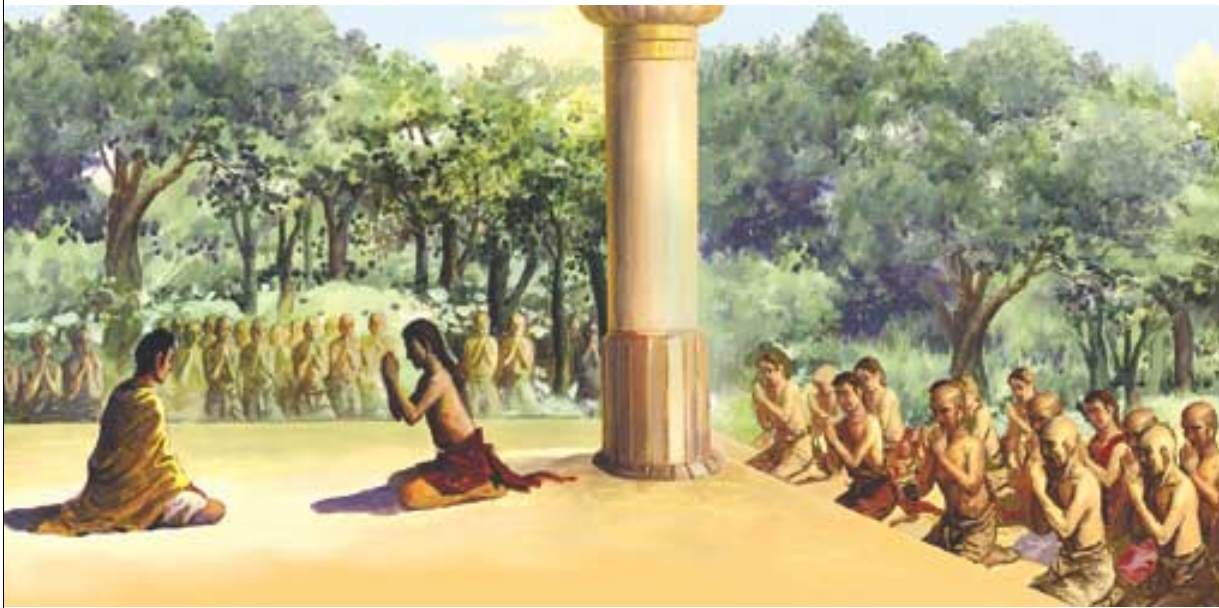
# 부처님

## 제31화 외도와 데바닷타



**붓** 다가 기원정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불교 포교 운동에 돌입하기 이전부터 스라바스티에는 이미 여러 교단에 속한 수행자들이 있었다. 그중에는 단독으로 수행하는 자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교단을 만들어 소속되어 있었으며 재가신들로부터 의식주의 기부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다. 이 시대에 육사외도(六師外道)라고 하는 여섯 사람의 대표적인 종교가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푸라나 카사파(Purana Kassapa), 막갈리 코살라(Makkhali Gosala), 파쿠타 캣차야나(Pakudha Kaccayana), 아지타 케사 캄발리(Ajita Kesa Kambeli), 산자야 벨라티풋타

(Sanjaya Beletthaputta), 니칸타 나다풋타(Nigantha Nataputta) 등이다. 이들 중 막갈리 고살라가 아지비카교를 이끌면서 유행했고 산자야 벨라티 풋타는 그 제자들을 모두 다 붓다에게 빼앗기고 피를 토하며 죽고 만다. 또 니칸타 나다풋타는 지나교의 개조(開祖) 마하비라(Mahavira)를 말하는데, 이들은 때를 기다리는 숙명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불교진출 이전부터 스라바스티를 중심으로 커다란 종교적 세력권을 구축하고 있어서, 스라바스티 사람들은 이미 이들의 영향권 내에 있었다.



**이** 들 중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낸 종교가 지나교와 아지비카교 등인데, 이들은 고행(苦行)을 중시 여겨 생활은 될 수 있는 대로 간소한 채 자기 자신의 육체는 많이 괴롭히는 것이 효과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기 몸을 확대하기 위하여 가시나 바늘방석에 앉기도 하고 나무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며 자기 나름대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였다. 이때에 그 고행의 방법이 극심하여 고통스러울수록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이처럼 살을 깎는 고행을 하면서도 불을 피워 제물을 바치는 등 형식적인 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특히 지나교나 아지비카교도들은 간소한 생활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

미에서 발가벗은 채로 아무데나 돌아다녔다. 소위 나형의도(裸形外道라 불리우는 것이 바로 이들이다. 지나교는 나형과 나형파(裸形派)와 백의파(白衣派)로 갈리게 되는데 나형파쪽은 가르침이 엄격하여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전 나체로 일관하며 고행도 극단적으로 맹렬하게 행하고 있었다. 부처님도 초기엔 이들의 영향을 받아 고행을 감행했었고, 부처님 최초의 다섯 제자들도 일반적인 수행방법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이들의 절대적인 영향으로 사회적 분위기도 이들의 수행방법을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해상처럼 등장한 붓다의 불교교단은 이들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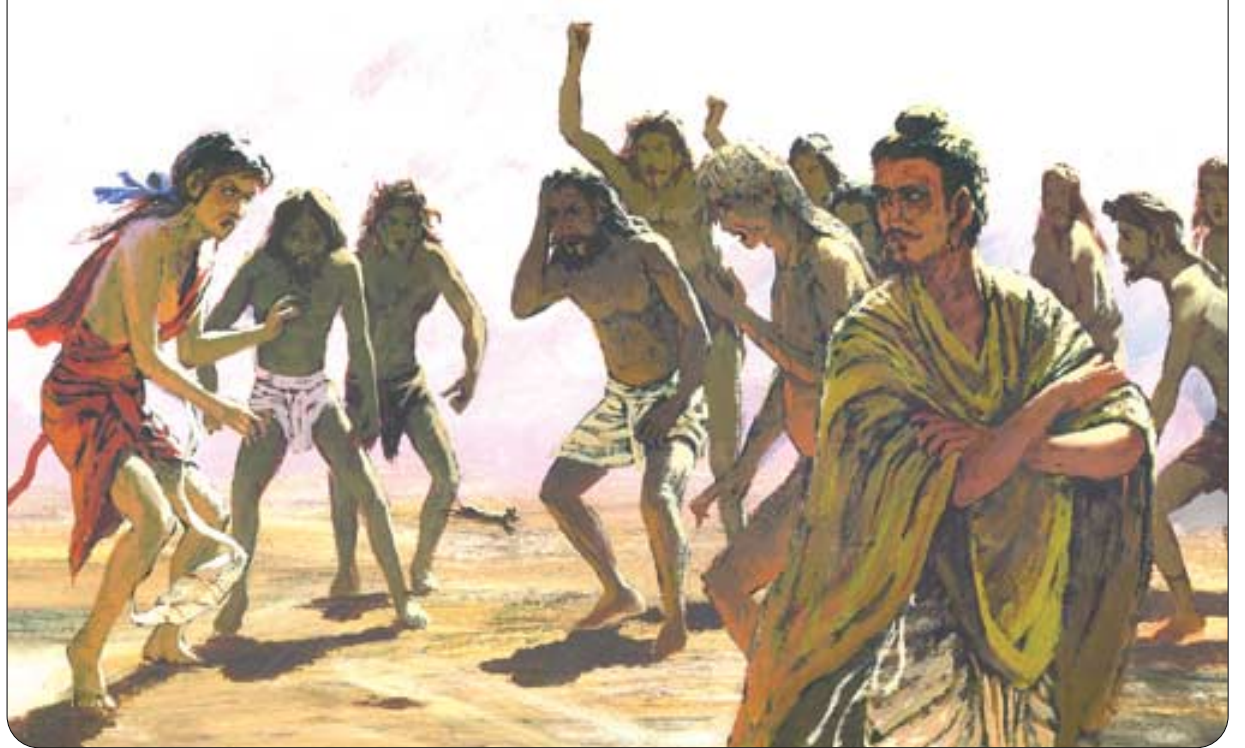
**붓** 다가 기원정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포교활동에 접어들면서 이들 기성 종교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다. 그리하여 붓다의 아지비카교에 대한 평가가 불전에 기록으로 남겨 되었다. “막갈리 코살라(Makkhali Gosalala)는 많은 사람을 파멸시킨다. 마치 하구(阿口)에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어부와 같은 자다.” 이와 같은 평가는 그 교의(敎義)가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며 또, 종교 활동이 지나치게 격렬하여 많은 사람들을 불필요하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겨 지적한 것이었다.

태도를 보이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붓다의 아이임을 선포하고 붓다를 도덕적으로 매도하며 신종불교의 세력을 꺾으려 한 것이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어디선가 네 마리의 쥐가 달려들어 여인의 옷을 물어뜯으니 그만 배위에 임신을 가장하기 위하여 감았던 전들이 풀어지며 진실이 밝혀졌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전설이 전해지는 이유도 붓다의 초기 불교에 이교도들이 얼마나 당황했으며 또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데바닷타 (DEVADAT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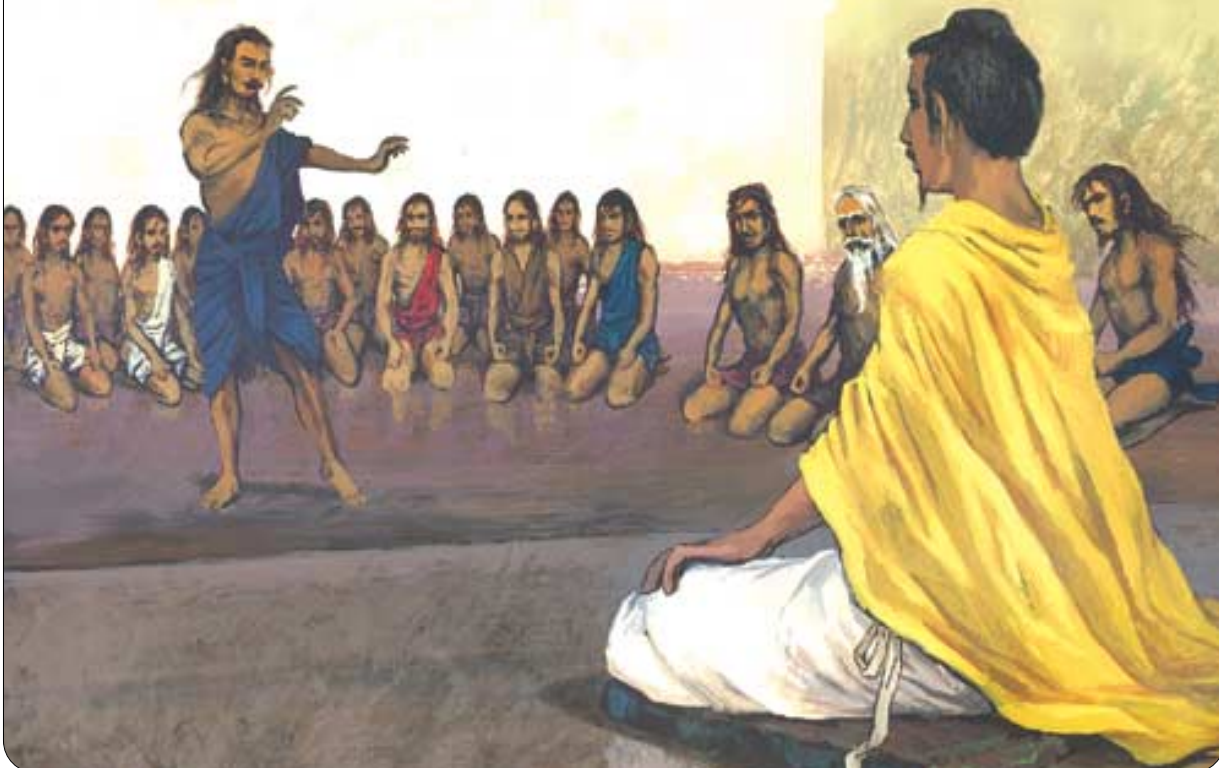
붓다의 명성이 나날이 높아가며 시민들이 기존 종교를 떠나 불교에 기우는 분위기가 무르익어가자 불교에 대한 저항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으니, 그중의 한 설화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일단의 종교장로들이 자구책(自救策)으로 불교를 타도하기 위하여 음모를 꾸몄는데 붉은 옷을 입은 거리에 천지라는 예쁜 여자 수행자로 하여금 붓다에 접근하여 붓다의 아기를 잉태한 듯 꾸민다. 처음 배가 불룩하도록 만들어 출산을 준비하려는 듯한

붓다의 정력적인 포교활동의 성공은 마침내 코살라의 국왕 프라세나짓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기성 이교도들의 도전을 뿌리치고 기원정사 안에 그 뿌리를 내림으로써 증명되었다. 비록 기원정사가 안정을 찾았다고는 하나 아직은 초기의 발전단계여서 붓다가 한 곳에만 너무 오래 머물 수는 없었다. 이리하여 교단의 중요인 몇 사람을 데리고 다시 마가다의 죽림정사로 옮겨갔다.



**이** 제 붓다의 불교가 인도 제일의 신종종교로서 성장했음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불교의 세력을 이용하여 위세를 과시해 보려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악역으로 유명한 데바닷타였다. 데바닷타(婆達多), 그는 세속적인 인연으로 보아 붓다와는 사촌지간이다. 붓다의 태자시절의 정비인 야소다라의 동생이며 붓다의 애제자 아난다의 형이기도 했다. 그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붓다(과거불)를 믿었지만 어떤 시절을 같이 보냈던 싯다르타가 점으로 붓다가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가 없었다. 그는 언제나 경쟁상태에 있던 붓다가 불교의 교단을 크게 일으키자 서서히 붓다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먼저 붓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교적을 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마치 지나교의 극렬 고행주의를 본뜬 것으로 불자들은 정사의 생활을 버리고 다시 숲속으로 돌아갈 것. 탁발(托鉢)한 것 이외의 음식은 먹지말 것. 분소의(누더기)만 입을 것. 나무 밑에만 앉을 것. 생선이나 고기를 일체 먹지 말 것 등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강제로 이행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미 고행 수행의 폐단을 충분히 경험했던 붓다는 계율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거절하였다.

“붓다시여, 우리 불교의 교단을 신앙심 하나만으로 이끌고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동안 붓다께선 많은 노력을 하셨고 이제는 나이가 드셨으므로 아무쪼록 교주의 위치로 앉아가게시고 교단의 운영 통솔은 저에게 맡겨 주시면, 모든 시끄러운 문제가 일거에 소멸될 것입니다.” “데바닷타야, 네가 제안하고 있는 다섯 가지의 계율이란 모두 지나교도들의 계율이다. 그러한 수행방법이 꼭 옳다고 믿으면 그냥 조용히 지나교가 모이는 안다바나 숲으로 가거라. 나는 이미 그러한 수행방법을 행하여 본 경험이 있어서 그와 같은 방법이 틀렸음을 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하여 거론하지 말라. 그리고 교단을 통솔하는 문제에 네가 나서서 스스로 교단을 운영하겠다고 요구할 일이 아니다. 만약에 때가 되어 교단의 통솔권을 넘겨줘야 한다면 그것은 여기 사리풋타나 목갈라야나지, 어째서 6년 동안이나 군침을 삼키고 있는 너에게 맡길 수 있을 것인가.” 부처님의 준엄한 한마디에 불자(佛子)들은 숨을 죽였고, 붓다가 후계자를 좀 더 확실히 밝힘으로써, 데바닷타는 공개석상에서 크나큰 망신을 당하고 말았다.



**데** 바닷타는 붓다로부터 큰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오랜 생각 끝에 빽비사라 국왕의 아들 아자타사트루(Ajatasattu) 왕자를 후원자로 정하고 그를 찾아가 마음속에 간직했던 속마음을 털어 놓았다. “사실 요즈음 빽비사라왕이 붓다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붓다의 법을 따르려는 징조가 보입니다. 왕자님이 왕위에 오르기도 전에 부왕께서는 이 나라를 붓다에게 넘겨줄지도 모릅니다.” “데바닷타야,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왕위에 오르지 않으면 안 될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이야기한 일이 없지만, 데바닷타라면 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그간의 사정을 말해 주리다. 사실 벌써부터 부왕(父王)은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 죽림정사만 찾아가 붓다의 가르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부왕대신 국정을 살피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지요.”

